

한국 부흥설교 중 성령체험에 있어서 몸의 해석학적 역할에 관한 연구¹

정 재 웅
(서울신대 설교학)

I. 들어가는 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Praedication verbi Dei est verbum Dei*). 이 명제는 제 2 헬베틱 고백서에 하인리히 불링거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종합하여 담은 설교에 대한 정의이다.² 불링거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의 정의의 이면에는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과 함께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가 같은 속성을 지닌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에 관한 정의는 20 세기 들어서 칼 바르트에 의해 삼중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된다. 즉, 성서에 근거한 설교가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원계시가 성서라는 기록 매체를 통해 보존 및 매개되고, 이 성서에 근거한 설교는 곧 성서에 보존된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계시를 성서의 독자이자 청취자인 회중들에게 재매개되는 계시 사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부흥설교 전통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물론 부흥설교라고 하더라도 설교가 성서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교리적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이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부흥설교가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확신에 근거하여 설교의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것을 강력히 선포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체험의 사건은 지적인 이해의 영역을 포함하여 감정적 신체적 반응을 포함한다. 웨슬리의 알더스게이트 회심에 관한 기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체험은 곧 말씀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 웨슬리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부흥 운동들, 그리고 19 세기 제 2 차 대각성운동 및 그 이후에 일어난 세계 각지의 부흥운동들의 기록들, 그리고 평양대부흥으로부터 현재까지 부흥회 때마다 한국의 성도들이 체험하고 증언하는 바는 설교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한 체험은 단순한 지적 동의 혹은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적 신체적 반응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상 그 자체만을 관찰할 때에, 부흥설교 중 성령체험에서 몸이 무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설교 중 발생하는 성령 체험에 있어서 몸의 역할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혹자들은 설교 중 성령을 체험하며 겪는 신체적 반응을 말씀을 이해하는 두뇌 작용으로 인한

¹ 이 논문은 『신학과 실천』 73 호에 발표한 “설교에서 하나님 현존의 체화된 경험”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한국부흥설교 중 성령체험에 있어 몸의 해석학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발표 자료이므로 많은 부분이 『신학과 실천』 논문과 중복됩니다. 참조: 정재웅, “설교에서 하나님 현존의 체화된 경험,” 『신학과 실천』 73, 147-177.

²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Book of Confession*, pt. 1,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 53-54.

부수적 효과로 보는 것 같다. 또 다른 이들은 이러한 신체적 반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열광주의적 혹은 광신적 집단의 반지성주의적 태도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여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더하여 설교 중 설교자와 회중이 실행하는 신체적 동작과 설교 중 성령체험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몸에 대한 무관심은 부당한 것이다. 현대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며 몸의 해석학적인 역할을 주목했다. 즉, 몸은 단지 정신을 담는 그릇 혹은 정신활동을 매개하고 처리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인간이 세계-내-현존 방식이며 몸은 인간의 사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후설의 현상학을 발전시켜서 이러한 신체적 사유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 메를로-퐁티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학자들이 신체적 인지(Embodied Cognition)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학자가 마크 존슨(Mark Johnson)이다.

이러한 몸으로의 철학적 전회는 의례학, 예배학, 설교학에도 영향을 미쳐 예배와 설교 가운데 몸이 어떠한 해석학적 역할을 하는지에 논의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예배 실행 양식인 예전적 몸짓(liturgical gestures) 및 자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교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취하는 자세와 몸짓, 퍼포먼스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 주지주의적 말씀 사건의 이해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설교가 설교자 개인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설교자와 회중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설교에 있어서 회중의 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이 있다. 특별히 필자는 성결교회의 주요한 설교적 실행 방식인 부흥설교에서 성령을 체험한다고 할 때에 회중의 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학적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소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부흥설교 중 발생하는 성령체험에서 몸의 해석학적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인지활동에 대한 신체의 역할을 다룬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부흥설교에서 실행된 신체적 활동들을 기술하고 그러한 신체적 활동들을 통해 몸이 부흥 설교 중 성령체험에 있어서 특정한 해석학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인간의 인지 활동에 관한 성육신적 이해

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이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선험적 신학적 명제는 “어떻게 인간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가”하는 질문을 가져온다. 즉,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혹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인식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즉, 인간의 보편 이성인 그것을 논리적 추론에 의해 참이라고 인식하거나 인간이 실제 그것을 경험할 때에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명 방식은 설득력이 있으나, 인간의 몸이 인간의 인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 세기 중반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 기반하여 신체가 인간의 인지 활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특한 인지 활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³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을 반박하면서 인간의 몸은 두뇌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라고 주장한다. 즉, 데카르트가 "나는 몸을 가졌다(I have the body)"라고 생각했다면, 메를로-퐁티는 "나는 몸이다(I am the body)"라고 주장하는 것이다.⁴ 정신은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분리할 수 없으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계 내의 신체적 존재이며 인간의 경험은 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그러므로 그는 "신체는 세계-내-존재의 매체(the vehicle of being in the world)이고, 살아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신체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에 통합되어 있으며, 어떤 기획과 일체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즉, 신체는 인간의 세계 내 현존 방식이며, 세계를 지각하는 인간의 해석학적 활동의 정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신체적 현존 방식이 인간의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메를로-퐁티는 육화된 존재로서 인간의 지각은 신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에 모든 인간의 지각 활동은 체화된 지식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죽은 몸과 같이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지각의 주체이다. 인간은 생활세계(the lived world, *lebenswelt*) 내에서 살아있는 몸(the lived body)으로서 존재하며 지각하는데, 이 때 신체는 지각의 대상(the objectified body, *le corps objectif*)임과 동시에 지각의 주체인 현상학적 몸(the phenomenal body, *le corps phénoménal*)이다.⁷ 그러므로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몸은 지각하고, 인식하고, 사유하는 주체이다.⁸ 몸은 의미의 운반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지각하고 의미가 실현되는 코기토의 주체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태를 지각하는가? 메를로-퐁티는 세계-내-현존으로서 몸이 사유하는 방식으로 언어에 대해 다룬다. 언어를 통한 인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기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실제 몸으로 생활세계에서 경험한 것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행위이다. 또한 말을 하고 지각하는 행위는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말과 같은 언어적 활동 역시 근원적으로 신체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체화된 행위이다.⁹ 더 나아가 그는 언어와 같이 추상적 기호체계를 통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몸을 움직이며 획득하는 신체적 지식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지(*praktognosia*) 라고 설명한다.

³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공유하는 주지주의와 경험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몸과 정신이 하나임을 주장한다.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Donald A. Land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13-51, 97-99. 국내 학자들 중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을 논의한 저작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정형, "몸의 현상학과 몸의 사회학을 통한 몸의 부활 교리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탐구," 『신학사상』 189 (2020), 231-235; 전현식, "성육신 신앙의 몸 현상학, 몸 신학적 이해," 『신학논단』 56 (2009/6), 339-361.

⁴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205.

⁵ Ibid., 84.

⁶ Ibid., 84.

⁷ Ibid., 73-74, 84.

⁸ 강미라, 『몸 주체 권력: 메를로 퐁티와 푸코의 몸 개념』, (서울: 이학사, 2011), 70, 75.

⁹ Ibid., 199, 179-205.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학사, 2004), 245-265.

인간이 실천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신체가 운동성(motricity)과 공간성(spatiality)을 갖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공간성이 몸이 공간적 세계 안에 존재함을 가리킨다면, 운동성은 몸이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즉, 공간성이 인간이 세계 내에서 신체로서 존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면, 운동성은 신체가 시공간적 세계 가운데 어떻게 행위하고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¹⁰ 이런 점에서 움직임 혹은 동작(movement)은 몸의 운동성이 나타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메를로-퐁티는 동작을 주체가 객체와 관계하는 지각의 원초적 방식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를 동적 의미화(a motor signification)라고 부른다.¹¹ 특별히 그는 몸짓(gestures)이나 신체적 기호(bodily signals)와 같은 추상적 동작에 주목하며, 이러한 신체적 동작은 인간의 몸이 세계를 지각하고 자신이 지각하는 세계에 관한 의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즉, 의식은 몸을 인식함과 동시에, 의식은 동작의 방식 혹은 다른 방식으로 몸을 통해 사물로 나아간다고 지적한다.¹²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몸의 동적 경험은 실천지(praktognosia)라는 세계와 대상에 이르는 방식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¹³

메를로-퐁티는 습관을 실천지 혹은 동적 의미화의 예로 제시한다. 새로운 안무나 수영 방법을 배운다고 하자. 이 때 댄서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동작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언어적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동시에 실제 그것을 몸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비언어적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어떻게 동작을 수행하는지 배우게 된다. 반복적인 실행이 습관이 되어 몸이 기억하게 되면, 행위자는 그 동작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몸짓이나 신체적 기호, 더 나아가 예술이나 종교에서 실행되는 신체 동작들은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한다. 즉, 몸은 단순히 생각의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채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의미가 충만한 핵심"이다.¹⁴ 약술하자면, 메를로-퐁티는 인간은 문자와 같은 언어적 기호 체계를 매개로 한 지적 학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동작과 같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적 추론을 통한 인식론과는 구별되는 신체적 인식론(somatic epistemology)을 제시한다.

2. 체화된 인지 이론의 인식론

이러한 몸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20 세기 후반에 체화된 인지이론(embodied cognition theory)이 등장했다.¹⁵ 메를로-퐁티가 체화된 인지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기초를 제공했다면, 체화된

¹⁰ Ibid., 127-155.

¹¹ Ibid., 113. 메를로-퐁티가 설명하는 실천지는 부르디외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sense)과 유사하다.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trans. Richard N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86, 80-97.

¹² Ibid., 140.

¹³ Ibid., 141.

¹⁴ Ibid., 148.

¹⁵ 체화된 인지이론에 관하여는 다음 저작을 참고하라.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London a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Francisco J. Varela, Evan Thompso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인지이론가들은 경험주의적 연구들을 통해 신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신체가 인간의 세계내 존재 방식이며 경험의 근원적 조건임을 주장한 메를로-퐁티와 같이 체화된 인지학자들은 신체가 인지의 근본적 정초이며 정신은 체화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체화된 인지학자들은 메를로-퐁티의 실천지로 대표되는 신체를 통한 지식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몸이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연구한다. 예를 들어, 마크 존슨(Mark Johnson)은 상상(imagin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이 몸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추상적 개념으로 발전시키는지를 논의한다.¹⁶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상상이란 공상(imaginary)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리 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세계에서 경험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이른다.

존슨은 이미지 도식(image schemata)과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라는 경험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이미지 도식은 "우리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연결시키는 개념적인 상호작용과 공적 프로그램의 반복적이고 동적인 패턴"이다.¹⁷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와 아래라는 방향을 지각할 때에, 이러한 공간에 관한 지각은 이미지 도식의 일종인 수직적 도식을 활용하여 발생한다. 수직적 도식이라는 것은 공간 안에서 수직이라는 추상적 구조이지만, 공간 안에 존재하는 신체가 신체 도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 행위자는 자기 몸 안에 각인되고 이미지화된 수직 도식을 활용하여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¹⁸

둘째, 은유적 투사는 경험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다. 존슨은 은유란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얻은 패턴들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¹⁹ 즉, 인간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 경험을 우리가 이해해야하는 추상적 개념에 은유적으로 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 안에 신체를 통해 체득한 위-아래 방향이라는 이미지 도식을 사용한다. 이 때,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공간 안에서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의 은유로 확장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²⁰

필자가 볼 때에 은유적 투사는 신학적 이해에도 작동한다.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경험한 "위"라는 이미지 도식을 활용하여 이해한다.²¹ 그러므로 게렛 그린(Garrett Green)이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Shaun Gallagher, *How the Body Shapes the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Mark Johnson, *The Meaning of the Bod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Lawrence Shapiro, *Embodied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2011).

¹⁶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xiv-xv, 139-172.

¹⁷ Ibid., xiv, 29, 79.

¹⁸ Ibid., 75-76. 마크 존슨의 이미지 도식에 관한 설명은 메를로-퐁티의 신체 도식에 의한 지각 이론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cf.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244, 253-311.

¹⁹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xv.

²⁰ Ibid., xv, 65-100.

²¹ 여기에서 신체적 경험은 시각적 경험만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운동감각적 경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라는 공간 개념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시각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앉고, 일어서고, 눕는 등의 신체적 동작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다. 메를로-퐁티는 뇌손상환자인 슈나이더의 경우를 논의하면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몸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 유효함을 설명한다.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78-91) 필자는 이러한 추상적 개념의 학습과정에 언어적 교육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간에게 있어서 몸만큼이나 언어는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 사유에 있어서도 역시 신체를 통한 운동감각적 이해와 언어를 매개로 한 이해가 통합되어

주장한 바와 같이, 상상력은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만나는 접점이자 인간이 계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²² 이러한 신체를 통한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 곳이 예배이다. 예배를 드리며 수행하는 많은 상징적 행위들은 단지 의미 없는 몸짓에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내고 의미를 표현하며, 동시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사유하는 은유적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흥설교 중에 행해지는 다양한 신체적 동작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산 혹은 추임새, 혹은 별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며 의미를 형성하는 신체적 사유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설교자가 설교 중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청중들의 의식 속에 위에 계신 하나님, 곧 초월적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경험해 온 한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설교자의 “할렐루야”라는 부름에 회중이 두 손을 하늘 높이 펴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부름과 응답(Call-and-Response)는 설교자가 회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본적인 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는 회중들이 높이 계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최선의 신체적 몸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크 존슨의 은유적 투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몸을 통해 이해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징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신체는 단지 생각이나 의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고 이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실존적 기초이며 더 나아가 예전적 퍼포먼스는 인간이 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몸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3. 사회적 기억의 변증법을 통한 체화된 인지

앞서 마크 존슨의 체화된 인지이론을 신학적 은유적 상상력에 적용하여 예전적 퍼포먼스가 상상력을 통한 계시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혹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곡해 혹은 오해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은유라는 것이 비교하는 두 대상이 일치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하고 연결짓는 것을 작업이기에 배태하고 있는 은유적 상상의 인식론적 오류의 위험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며, 필자 역시 은유적 상상을 통한 인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비교 대상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공통점을 상상력을 통해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은유는 합당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을

은유적 상상력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²² Garrett Green, *Imagining God: Theology and Religious Imagin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9), 28-40, 84. 이러한 점에서 여러 신학자들은 계시와 상상력의 관계에 관해 주목해왔다. Gordon D. Kaufmann, *Theological Imagin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81); David Tracy,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Crossroad, 1981); Sallie McFagu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1982); William T. Cavanaugh, *Theopolitical Imagination: Discovering the Liturgy as a Political Act in an Age of Global Consumerism* (London: T & T Clark, 2002); James K. A. Smith,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3). 찰스 바토우가 상상력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자리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 설교학자들도 상상력을 설교에서의 계시 경험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cf. Charles L. Bartow,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1997), 37.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된다. 또한 은유를 통해 인식하는 대상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은유가 표현하는 대상의 속성과 실재의 속성이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에 혹은 손을 높이 들어 높이 계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이는 공간의 한계 안에 경험되고 표현되는 표상을 통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경험의 한계 내에서 상상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하나님은 공간적인 의미에서만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에 계신 분"으로서 은유적 언어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술은 성서에서 기술된 하나님의 표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요컨대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공간의 한계 내에서 지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경험을 은유적 상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성서의 언어가 과학 논문에 쓰여진 글과 같이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데이터라기 보다는 은유적 언어인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경험을 증언하는데서 오는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지각의 한계는 신체적 지각의 한계와 인간의 불완전한 상상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어의 한계이며 이성의 한계이기도 하다. 즉, 이성적 추론이든 신체적 지각이든 인간의 지각은 불완전하며 온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신체적 동작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설교의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 역시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각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계시 사건의 기억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원계시 사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건이기에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은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사회적 기억 이론을 주목한다.

신체적 실행을 통해 획득한 체화된 지식은 개별 신체적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 지식이다. 특별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은유적 상상을 통한 지식이기 때문에 인식론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기억 이론은 이러한 개인적으로 체화된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냐 하는 문제를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찬양 중에 손을 들면서 그 몸짓이 지향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든지 언어와 몸짓으로 전달되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개인에게는 분명한 사실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개별적인 몸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개인의 경험은 그 행위자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경험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하도록 한다. 만약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타인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면, 개인의 신체적 경험은 진실되고 신뢰할만한 경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 신체를 통해 경험한 의례적 지식은 사회적 승인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폴 코너튼(Paul Connerton)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 기억 이론을 발전시켜 사회적 기억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코너튼에 따르면 공동체가 어떤 의미있는 사건을 공동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게 되며, 이 때 공동체는 이 의미 있는 사건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문서와 같은 기록 저장 매체와 함께 의례적 퍼포먼스를

활용한다고 주장한다.²³ 이를 교회에 대입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리스도 사건을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할 때에 이를 성서라는 기록 저장 매체와 함께 성만찬과 세례와 같은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전수함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코너톤에 따르면 사건의 사회적 기억은 단지 텍스트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 퍼포먼스라는 수행미학적 수단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이다.

텍스트와 의례를 통해 전달되는 기억 속의 사건은 최초 사건을 그대로 마치 복제하듯이 후대의 전승자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자 혹은 의례 참여자들에 개인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해석된 사건으로서 기억된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통해서든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서든 전승된 사회적 기억은 해석의 산물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히, 텍스트를 통한 기억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보존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해석학적 틀을 유지하는 반면, 의례적 퍼포먼스의 의미는 공동체가 기억하는 사건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참여자들의 개체적 경험에 따라 다양하며 변이가 일어날 여지를 보다 폭 넓게 허용하기 때문에 보다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억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의한 검증 혹은 합법화(legitimate) 과정이 필요하다.²⁴

알박스는 사회적 기억이 전통, 언어, 문화와 같은 사회적 틀(the social framework) 안에서 형성되며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틀에 통해서 검증되고 합법화된다고 주장한다.²⁵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틀을 통해 걸러진 사회적 기억은 교리 혹은 조지 린드벡(George Lindbeck)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공동체의 언어-문화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렇다면, 개인의 경험은 사회적 틀을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억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틀은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 기억을 검증하고 합법화하는가? 이러한 과정을 단순화하여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체화된 기억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간에 상호검증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텍스트의 독서를 통해서든 의례적 퍼포먼스에 참여함을 통해서든 그 공동체가 전수하는 사건을 기억하게 될 때에, 개별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해석학적 지평에서 본인이 지적, 정서적, 신체감각적으로 기억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 때, 개별 참여자들은 사회적 틀 안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한 기억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재구성한 사건의 기억이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수용 가능한 기억으로 승인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걸러지게 된다.²⁷ 동시에 공동체가 기술하는 사회적 기억은 개별 구성원들이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한 기억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평가받고 승인

²³ Paul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4, 38, 40.

²⁴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35.

²⁵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 trans. Lewis A. Cos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1992), 40, 43. cf.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37.

²⁶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106. cf. 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32-41.

²⁷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38-40, 172.

혹은 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속에서 개별 참여자들은 자신이 텍스트 및 의례를 통해 전달받은 기억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검증하고,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설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사회적 기억으로 본다면, 우리가 설교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 경험을 구성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기억에 다름 아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제자공동체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이들의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기억은 성서라는 기록 매체와 성례전 및 여타 예배 중 실행되는 의례적 퍼포먼스 및 설교라는 구술 전승 매체를 예배라는 의례적 해석학적 매트릭스 안에 결합시켜서 전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승받았고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온전히 텍스트를 통해서만 매개되는 것도 아니고,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서만 매개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와 같은 구전 전승으로만 전수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통합적으로 예배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의 청중이자 예배참여자들인 회중들은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고, 설교를 듣고, 성례전 및 다양한 예전적 행위들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한다. 아남네시스(*Anamnesis*)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 경험으로 재현되는 기억이다.²⁸ 그러므로 예배 중에 회중은 과거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동시에 현재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설교가 왜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설교라는 구술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가 전달하는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예배라는 언어와 퍼포먼스, 그리고 텍스트가 통합되어 있는 해석학적 매트릭스를 통해 전달되고 재현된다.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전적 예배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와 같은 비예전적 집회에서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언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예전적 퍼포먼스들을 통해 전달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서의 증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던 현실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성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예배라는 사건 속에서 언어라는 기호 체계와 예전이라는 신체적 실행을 통해 씨줄과 날줄처럼 직조되어 예배자이자 설교의 청중인 회중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개별 참여자들은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어라는 기호 체계와 퍼포먼스라는 신체적 실행을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전인적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다.

설교라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언어라는 기호 체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설교자와 회중이 실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퍼포먼스를 통해 구성된다. 혹자는 설교는 현장 예배에서의 실행 뿐만 아니라, 라디오 설교와 같은 음성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고 설교집과 같은 문서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설교라는 텍스트의 메시지는 문서 매체 혹은 음성 매체와 같은 신체적

²⁸ 브루스 모릴(Bruce Morrill)은 기억이라는 행위는 단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것을 관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아남네시스(*Anamnesis*)로서의 기억은 과거에 관한 무언가를 기억저장고에서 꺼내는 행위임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상과 현재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추하게 하는 인식론적 활동(*an noetic activity*)이다. Bruce T. Morrill, *Anamnesis as Dangerous Memory: Political and Liturgical Theology in Dialogu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146-147.

매개를 덜 필요로 하는 매체(disembodied media)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험이 현장 예배에서 경험하는 말씀 경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청교도적인 예배에서 실행되는 설교와 같이 설교자는 원고를 읽고 회중은 정자세로 앉아 귀로 듣고 설교 요지를 받아쓰는 설교에서의 경험과 오순절교회의 예배에서나 흑인 교회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능동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화답하는 설교에서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라디오 설교라고 할지라도 설교자는 음성의 고저, 빠르기, 강약 등을 조절하며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이지 않을 뿐 설교자는 말씀을 신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오디오 설교를 듣는 회중도 역시 신체적으로 실행된 말씀을 다양한 신체적 방식을 통해 받아들인다. 어떤 이들은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라디오 설교를 들으며, 어떤 이들은 정자세로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설교를 듣기도 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모드의 말씀 경험은 설교 원고의 차이에서 나오기도 하거니와 설교를 음성으로든 온 몸으로든 실행하는 방식과 설교를 듣는 회중의 신체적 실행 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메를로-퐁티가 말한 바와 같이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인간의 언어 활동 자체도 신체를 매개로 한 체화된 지각의 활동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는 의례적 컨텍스트 속에서 행해지는 설교에 참여할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 현존 경험은 순수하게 지성적인 정신활동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인지활동, 곧 체화된 인지의 산물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돈 세일리어스(Don E. Saliers)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순수하게 지적인 것일 수 없으며," 구술 언어와 함께 예전적 행위와 같은 물리적 감각(physical senses)을 동원하는 비구술적 언어(nonverbal language)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성령이 주신 사회적 몸 안에서 물리적 감각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²⁹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행해지는 설교 역시 몸을 통해 수행되고 경험되는 체화된 인지 경험이라는 점에서 설교가 어떻게 성서 텍스트의 정보를 설교문이라는 또다른 텍스트로 구성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전통적인 설교학적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설교 중에 행해지는 설교자와 청중의 예전적 퍼포먼스가 하나님 경험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해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설교가 성서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그 텍스트의 전달 역시 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설교라는 행위는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는 독서보다는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를 말과 몸짓과 같은 체화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수행미학적 예술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설교가 몸을 통해 수행되는 체화된 말씀 사건임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이성만이 작동하는 순수한 정신활동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설교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은 오직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에 달려있다는 식의 설교학적 영지주의(homiletical Gnosticism)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³⁰ 실제 매일 강단에서 일어나는 설교는 설교자가 온 몸으로 체험하는 삶과 회중이 온 몸으로 체험하는 삶이

²⁹ Don E. Saliers, *Worship Come to Its Senses* (Nashville: Abingdon, 1996), 15.

³⁰ 이 표현은 토머스 롱이 현대에 신영지주의가 성육신과 체화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지적 경험으로 복음경험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한 것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Thomas G. Long, *Preaching from Memory to Hop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9), 72-74, 90-106.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곳이며, 설교자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회중이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이기에, 육화된 영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설교에 대한 성육신적 이해와 몸의 해석학적 역할

1. 현대설교학자들의 체화된 말씀 사건으로서 설교 이해

앞서 현대철학과 체화된 인지이론, 기억 이론 등에서 인간의 신체가 인간의 근원적 사유의 기초이며, 인간은 신체 동작을 실행하며 기억과 상상의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사태를 지각함을 살펴보았다. 현대 설교학자들 중 퍼포먼스 이론을 통해 설교를 접근하는 이들은 이러한 현대 철학의 신체적 전회를 설교학에 적용하여 설교가 체화된 말씀 사건임을 주장했다.³¹ 신설교학이 설교가 텍스트의 해석 과정을 통해 말씀이 제시되는 말씀 사건(word-event) 혹은 언어 사건(language-event)이라고 강조한데 반해, 이들은 말씀이 설교의 퍼포먼스라는 체화된 행위(embodied act)를 통해 형태를 입게 되는 수행적 사건(performative event)이라고 주장한다.³² 즉, 리처드 워드가 *Speaking from the Heart* 에서 "몸은 당신과 함께 생각하고 상상한다"고 하면서 "설교의 의미는 설교자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³³고 말한 바와 같이,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은 설교에서 성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재현되는 것은 몸을 매개로 한 체화된 퍼포먼스(embodied performance)를 통해서라고 주장한다.³⁴ 그러므로 이들은 말씀을 종이에 인쇄하여 보관하는 텍스트보다는 살아서 말씀을 수행하는 몸을 설교에서 제시 사건을 중개하는 근원적 매체로서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 중 자나 칠더스(Jana Childers)와 찰스 바토우(Charles Bartow)는 설교에서 발생하는 제시 사건에 있어서 몸의 역할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1) 찰스 바토우: 하나님의 자기 수행(Actio Divina)으로서 설교

먼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교수로 봉직했던 찰스 바토우의 하나님의 자기 수행으로 설교 이해를 살펴본다. 바토우는 *God's Human Speech* 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라는 개혁신교회

³¹ Richard F. Ward, *Speaking from the Heart: Preaching through Pass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Richard F. Ward, "Performative Turns in Homiletics: wrong Way or Right O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Religion* 17.1 (1994): 1-11; Charles L. Bartow,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1997); Jana Childers, *Performing the Word: Preaching as Theatr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8); Richard F. Ward, *Speaking of the Holy: The Art of Communication in Preaching*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1); Clayton J. Schmit, *Too Deep for Words: A Theology of Liturgical Express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Jana Childers, "The Preacher's Body,"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7.3 (2006): 222-237; Jana Childers and Clayton J. Schmit, ed., *Performance in Preaching: Bringing the Sermon to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Michael Brothers, *Distance in Preaching: Room to Speak, Space to Liste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2014). 국내 학계에서 퍼포먼스 설교학에 관한 저작으로는 김양일, "거룩한 공연으로서 설교," 『신학과 실천』 67 (2019), 95-124 를 참조하라.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은 퍼포먼스를 공연예술적 퍼포먼스라는 의미에서 연행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해 이론다는 의미에서 수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연예술적 퍼포먼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만 연행이라고 표기한다.

³² 여기에서 퍼포먼스란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기보다는 원어적 의미에서 실행 혹은 수행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Ward, *Speaking from the Heart*, 77.

³³ Ibid., 87.

³⁴ Ibid., 77.

교리를 수행으로서 설교(*preaching as performance*)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는 설교는 인간의 퍼포먼스(*homo performans*)와 하나님의 자기 수행(*actio divina*)이 만나는 곳, 다시 말해 인간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과 조우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³⁵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반복도 아니고 성서 본문을 논리적으로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서사와 같이 예술적이며 시적 창의적인 작품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인간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 사건이란 구술 사건(*a verbal event*)이라기 보다는 수행적 사건(*a performative event*)이라고 주장한다.³⁶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바토우는 설교의 근거인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수행의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서와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와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서의 세계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죽은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서 본문의 형태로 기록됨에 따라, 하나님의 자기 수행은 텍스트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록된 텍스트로서 성서는 피를 잉크로 바꾸어 버린 것과 같이 퍼포먼스를 텍스트 안에 가두어 버렸다.³⁷ 이렇게 텍스트에 갇힌 퍼포먼스는 읽혀지고, 말해지고, 수행될 때에야 비로소 텍스트에서 풀려나게 된다. 즉,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수행은 인간의 퍼포먼스를 만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토우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단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증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며 우리가 퍼포먼스를 통해 신적 현실과 조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⁸ 같은 맥락에서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몸을 통한 퍼포먼스가 필수적이다. 설교는 성서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설교자가 만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설교는 그러한 해석학적 만남에 관해 고백적이고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종의 텍스트로서 설교문은 성서의 텍스트와 같이 퍼포먼스를 가둬 두기 때문에, 설교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생명력을 얻게 된다.³⁹ 그러므로 설교는 인간의 퍼포먼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자기 수행이라는 수행적 사건이다.

더 나아가 바토우는 퍼포먼스가 설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방식은 퍼포먼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상력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은유, 환유, 제유 등과 같은 수사학적 장치들을 통한 문학적 상상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인간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수행적 혹은 연행적 상상(*performative imagination*)을 논의한다.⁴⁰ 마크 존슨의 이해를 빌려, 바토우는 퍼포먼스가 특정한 인간의

³⁵ Bartow, *God's Human Speech*, 111.

³⁶ Ibid., 3, 26. 바토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서의 말(*verbum*)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sermo*)이며, 이성(*ratio*)가 아니라 연설(*oratio*)이다...하나님의 말씀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구술-청각 상황속에서 행해지는 담화이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actio divina*)이다”라고 말한다.

³⁷ Ibid., 27, 63-64. 바토우가 말하는 “갇힌 퍼포먼스(*arrested performance*)”는 퍼포먼스 이론가인 비벌리 롱과 메리 홉킨스의 말을 빌려 기록된 문서가 수행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cf. Beverly Whitaker Long and Mary Frances HopKins, *Performing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Oral Interpret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³⁸ Ibid., 43.

³⁹ Ibid., 113, 121.

⁴⁰ Ibid., 3-4, 9-24, 36-37.

경험과 활동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 도식을 작동시킬 때에,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묘사하는 이미지를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⁴¹ 다시 말해, 설교자가 퍼포먼스를 통해 성서 본문을 표현할 때에, 설교자가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서의 세계에 관한 이미지들이 청중의 의식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청중들은 퍼포먼스가 묘사하는 성서의 세계를 살아있는 현실(the lived reality)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명제적인 것이 아닌 선험적인 경험으로서 인간의 몸을 통해 매개됨을 볼 수 알 수 있다.

바토우는 더 나아가 인간의 하나님 경험은 신체적 퍼포먼스를 통해 획득되는 신체적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체화된 예술(embodied art)로서 퍼포먼스는 말씀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청중이 듣고 알아왔던 것을 반성하도록 이끌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한다.⁴² 그러므로 바토우는 체화된 예술로서 퍼포먼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체적 방식의 하나이며, 인간은 설교에서 퍼포먼스를 통한 신체적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⁴³

2) 자나 칠더스: 퍼포먼스를 통한 말씀의 경험

자나 칠더스(Jana Childers)는 찰스 바토우와 함께 퍼포먼스 설교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Performing the Word*에서 칠더스는 퍼포먼스가 설교에서 말씀에 관한 반성적이며 미학적인 해석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바토우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에서, 그녀는 연기가 대본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환시키듯이 퍼포먼스를 통해 설교가 증언하는 성서 본문이 생생한 말씀으로 살아나고 설교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⁴⁴ 따라서 그녀는 "설교자가 본문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은 본문의 생기와 능력을 풀어놓으며, 청중들에게 그 본문이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⁴⁵

칠더스는 어떻게 이런 연행적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엘라 보자르-캠벨(Alla Bozarth-Campbell)의 이론을 활용하여 창조적 과정(the creative process)으로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설교자가 연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해석학적 경험은 설교자가 본문의 목소리를 듣고(창조), 본문에 참여하며(성육신), 최종적으로는 본문에 의해 변화(변화)되는 창조적 과정이다.⁴⁶ 즉, 설교자가 본문을 읽을 때 마치 배우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본문에 있는 말들을 수행하면서 그 말들을 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과정에서 설교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교에 붙잡히게 되고 변화되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설교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본문은 회중과 의미있는 말씀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설교에서의 창조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칠더스는 두뇌활동을 통한 말씀의 언어적 이해와 신체를 통한 지식이라는 인간이 무언가를

⁴¹ Ibid., 73-75.

⁴² Ibid., 73, 90-91.

⁴³ Ibid., 3-4, 9-24, 37.

⁴⁴ Childers, *Performing the Word*, 41.

⁴⁵ Ibid., 54.

⁴⁶ Ibid., 52-55. cf. Jana Childers, "The Preacher's Creative Process: Reaching the Well," in *Performance in Preaching*, 153-168.

자나 칠더스는 공연예술적 퍼포먼스(theatrical performance)라는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performance에 대해 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중적 모드에 관심을 기울인다.⁴⁷ 즉, 인간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몸을 활용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나 칠더스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도널드 맥러드 설교학 강좌(*the Donald Macleod Preaching Lecture*)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자리로서 설교자의 몸에 관한 보다 심화된 신학적 철학적 논의를 제공한다. 이 발표에서, 칠더스는 몸은 "의식 혹은 개체의 공간"이자 "경험의 여러 측면들이 지각되고, 통합되고, 포현되는 자리"라고 정의한다.⁴⁸ 릴랜드 롤로프(Leland Roloff)의 신체적 사고(somatic thinking) 혹은 몸을 매개로 한 지식(body-mediated knowledge)의 주장을 따라서, 그녀는 의미를 지각하고 환기하는데 있어서 몸의 창조적 역할에 대해 긍정하면서⁴⁹ 동작 혹은 움직임을 몸이 의미를 생성하고 지식에 이르는 방식으로 여긴다.⁵⁰ 즉, 인간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연행적 퍼포먼스 등 신체적 동작들이 표현하는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온전한 사태의 인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찰스 바토우와 자나 칠더스로 대표되는 퍼포먼스 설교학은 설교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몸이 계시적 말씀 사건으로서 설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의 논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몸은 의미를 표현하고, 동시에 인간은 몸을 통해 인식한다는 것이다. 에이미 맥컬로우가 말하듯이, 퍼포먼스 설교학은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그리고 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리고 "설교할 때 우리는 몸이다"⁵¹라는 단순하지만 그동안 간과해온 사실을 상기시킨다.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의 논의는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신체적 앎이나 체화된 인지학자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인식론과 궤를 같이한다. 즉, 신체는 인간의 세계-내-현존의 기초이며 인식의 매체이며, 신체의 동작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각의 방식이라는 메를로-퐁티의 주장⁵²과 같이,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퍼포먼스를 통해 의미를 표현하고 전송하는 수단이며 텍스트의 해석과 같은 지적인 의사소통 외에 몸의 움직임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사태를 인식하는 또다른 의사소통 수단임을 인정한다. 즉, 퍼포먼스는 단지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퍼포먼스 자체가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설교에서 몸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여 몸이 말을 전달하는 운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세상 속에서 생생한 현실로 드러나는 계시의 자리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은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해석학적 지평이며, 설교 사건에서 말씀이 몸을 통해 체화되고 수행될 때에 그저 말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한국부흥설교 중 성령 체험에 있어서 몸의 해석학적 역할

⁴⁷ Childers, *Performing the Word*, 115-116.

⁴⁸ Childers, "The Preacher's Body," 227.

⁴⁹ Ibid., 226-227.

⁵⁰ Ibid., 228-229.

⁵¹ Amy P. McCullough, *Her Preaching Body: Conversations about Identity, Agency, and Embodiment among Contemporary Female Preachers* (Eugene, OR: Cascade Books, 2018), 10.

⁵²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113, 141, 148.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사유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 체화된 인지이론, 기억이론 및 퍼포먼스 설교학의 이러한 논의는 설교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 현존 체험, 부흥설교 전통에서는 성령 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시 사건에 있어서 신체의 해석학적 역할에 관한 논의의 공간을 열어준다. 이들의 이론을 통해 볼 때, 강단에서의 몸짓이나 움직임, 표정 등을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설교자의 퍼포먼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 아니라 공연예술가의 무대에서의 몸짓이나 예배에서 행해지는 예전적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생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들은 기록된 성서 본문과 설교의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과 함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 경험이라는 계시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교자의 신체적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청중은 회중석에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행하면서 수용한다. 회중은 눈을 크게 뜨거나 감는다든지 혹은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방식으로 설교의 메시지에 반응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전통에서나 오순절/성결교회 전통에서 회중은 부름과 응답(Call and Response)이라는 의례적 혹은 예전적 실행을 통해 설교라는 말씀 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나직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이들도 있고, 일어나서 두 손을 뻗치며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혹은 "설교하세요! (Preach!)"라고 응답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교회의 부흥 설교의 실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청교도식 전통에 따라 진행되는 일반적인 주일예배에서의 설교와는 달리 설교자와 회중 모두 적극적으로 신체를 활용하여 설교 사건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기점이 된 1907년 1월 13일 장대현교회에서의 부흥회에서 길선주 목사는 밧줄을 활용한 실물 설교를 했다.

그는 로프에 족쇄를 채우고는 그것으로 자기 허리를 묶었다. 맥쿤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그가 오는 것을 보는 동안 그는 지도자 중 한 사람에게 그 로프를 쥐라고 요청했다. 길(선주)은 그것이 죄에 묶인 채로 그 속박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죄인을 나타냄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줄을) 당기고 몸을 뒤틀었다. 그리고 마침내 줄을 끊고, 급히 강단을 가로 질러 가서 맥쿤과 서로의 어깨를 끌어 안았다. ...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그들의 발 밑으로 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자 울부짖었으며, 다른 이들은 완전한 고통에 휩싸여 울부짖으며 마루에 주저앉았다.⁵³

즉, 평양대부흥에서 일어난 거대한 회개의 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길선주 목사의 공개회개라는 도덕적 감화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의 신체를 활용한 극적 실물 설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길선주 목사의 실물 설교를 보던 회중들은 마치 자신들이 죄에 묶여 있는 죄인과 같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밧줄이 끊어진 강단 밑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간구하며 울부짖은 것이다.

길선주 목사 이후 활동한 김익두 목사 역시 신체를 활용한 실물 설교를 활용하였다. 어느 날 그는 옛 습관을 버리도록 설교했는데, 특별히 상투 트는 습관을 버리도록 설교했다. 단발령 이후 공식적으로 조선에서 상투 트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전통적 유교적 가치를 따라 상투를 틀었다. 설교 중 김익두 목사는 회중들에게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고, 상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어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투를 잘라내 버렸다. 이에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울었다.⁵⁴ 죄에 따라 옛 습관을 따르는 것과

⁵³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vol. III, no. 3 (March, 1907), 36-37.

⁵⁴ 김운용, 『한국교회 설교역사: 이야기 혁신성의 관점에서 본 설교자들의 이야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29-

결연하는 것이 상투를 자르는 신체적 경험과 연결되었을 때에 이들과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험을 제공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알려진 바대로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를 통한 놀라운 치병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역시 회중들에게 말씀이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을 제공했다. 즉,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며,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칭의와 중생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성봉 목사도 부흥 설교에서 신체 감각을 활용한 설교를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심도 설교와 설교 중 혼자 혹은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명심도는 독일 루터교 목사 고쓰너(J. E. Gossner)가 출판한 『사람의 마음』(*Das Herz des Menschen*)을 배위량 선교사(William Baird)가 1912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명심도는 회심하기 이전 자연인의 상태와 회심한 후 성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회심하기 이전 자연인은 상투를 튼 모양으로 김익두 목사가 설교한 바와 같이 옛 습관을 따르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악마, 호랑이, 여우, 공작, 뱀, 염소, 돼지, 자라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포악함, 의심, 교만, 거짓말, 호색, 탐욕, 게으름 등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반면 중생한 사람은 이러한 마귀와 죄악들이 마음 속에서 떠나가고 그 자리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뜨인 영안과 빛나는 양심을 상징하는 별이 차지하게 된다. 또한 중생한 사람은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옛 습속을 버리고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⁵⁵ 이처럼 이성봉 목사는 설교의 메시지를 명심도를 통해 시각화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중간 중간 관련된 찬양을 독창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회중들과 함께 합창을 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청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⁵⁶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 설교자들은 인간이 신체를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점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회중들 역시 그들의 신체를 활용하여 말씀을 수용했다. 앞서 길선주 목사나 김익두 목사의 예와 같이 설교자의 퍼포먼스를 보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회중은 능동적으로 신체를 활용하여 말씀을 받아들였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통성기도이다. 흔히 통성기도를 설교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통성기도가 설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성기도는 대개 설교의 종결부에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교자가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에 제안하는 기도의 내용 역시 설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설교 후 시행되는 통성기도는 회중이 온 몸을 통해 설교의 내용을 수용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주여 삼창”으로 시작되곤 하는 통성기도⁵⁷를 부정적으로 여겨 회중조작적인 기술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회중의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부르는 행위는 신체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과 그 앞에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스스로의 상호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230.

⁵⁵ 이성봉, 『천로역정, 명심도, 요나서 강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⁵⁶ 정인교, 『100년의 설교산책: 한국성결교회 100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07-408.

⁵⁷ 소태영, “주여 삼창의 순복음교회 기도양식에 내재된 탄식의 영성과 교육,” 『영산신학저널』 40 (2017), 116.

몸짓이다.⁵⁸ 더 나아가 설교의 내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회중은 성서 본문에 기초하여 설교를 통해 전달된 교회의 공통의 기억, 곧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과 조우하게 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를 통해 인간은 은유적 상상을 하게 되고, 이 상상이 교회가 전승하는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과 상호작용하며 하나님 현존의 체험을 구성하는 방식이 설교 이후에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통성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신체를 통해 은유적 상상과 공동체의 기억이 만날 때, 더러는 방언, 경련, 쓰러짐 등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신체적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경험한 회중은 이를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삼게 된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정상성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이를 비정상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이러한 영적 사건 가운데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초월자의 개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계속해서 의심의 대상이 되며, 자신의 신체적 경험이 단지 심리적 충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인지를 스스로 묻고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적 경험이 영적 체험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일부 부흥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회중 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중의 입장에서는 신체적 경험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때 중요한 검증의 기준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전수된 공동체적 기억이다. 일차적으로는 성서의 기록된 기억이 검증자료가 된다. 곧, 성서에 이러한 비정상적 신체적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게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교리 등이 검증의 자료가 된다. 만약 이런 신체적 현상들을 신비주의적, 열광주의적, 혹은 이단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교단에 속해 있다면, 자신이 설교 사건 중에 분명히 신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현상을 기피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설교자와 회중은 설교에서 신체적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할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중과 설교자가 이런 신체적 현상들을 성령체험의 증거로 여기는 오순절적 교단에 속해 있다면, 오히려 성령의 임재 체험을 위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단의 설교자는 몸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설교하는 것이 허용되고, 회중들은 통성기도 등 몸을 활용한 참여가 장려된다. 이러한 모습은 설교 중 성령체험이 신체적인 것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러한 신체적인 경험을 일종의 공동체적 기억인 교회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설교의 실행 방식 역시 달라짐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보면, 한국부흥설교는 신체를 통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설교 혹은 신체적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의 설교를 했으며, 부흥설교의 회중들 역시 통성기도 및 부름과 응답, 박수를

⁵⁸ 부흥사들은 손을 드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내 지식, 경험, 명예, 수단, 그리고 내가 쥐고 있던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 둘째, 내 모든 걱정, 염려, 문제들,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셋째, 나는 질서이고, 방향, 계시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성기, 김병훈, 최윤석,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부흥회의 실제: 부흥사학 개론』 (대전: 한국희망목회포럼, 2015). 237.

치며 찬송을 함께 부르는 방식 등 신체적 활동들을 통해 설교 사건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활동들은 설교와 단절된 혹은 구분되는 행위들로 혹은 기껏해야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수단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의례 행위와 같은 신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신체적 활동들을 회중이 설교에서 말씀을 신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체를 통한 말씀 수용의 과정에서 회중이 은유적 상상과 사회적 기억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의식 속에서 생생한 성령 체험 사건으로 재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V. 나가는 글

지금까지 설교에서 하나님의 현존 경험은 신체와 분리된 두뇌활동 혹은 순수 정신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한 지적 경험과 신체를 통한 미학적 경험을 통합한 체화된 인지 활동의 결과임을 논의하였다. 특별히 한국부흥설교의 실행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체화된 인지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의 몸은 정신을 보관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세계-내-존재로서 사태를 지각하는 인식론적 기초이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의 정신을 이어서 체화된 인지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인지 활동은 신체와 분리된 두뇌 활동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통한 경험을 통합하는 체화된 인지활동이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 활동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투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작동하며 더 나아가 초월적 현실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은유적 상상은 텍스트의 문학적 상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의례적 퍼포먼스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은유적 상상을 통한 경험은 오해 및 곡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개별 행위자가 속한 공동체가 보존하는 지식과 교차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틀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형성되고 검증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억 이론을 살펴보았다.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기억은 예배와 설교의 실행 속에서 성서 본문의 텍스트의 해석과 함께 예전적 퍼포먼스라는 체화된 실행을 통해 매개되며, 이는 사회적 틀 속에서 구성되고 검증되는 변증법적 해석학적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체화된 인식론을 찰스 바토우와 자나 칠더스 같은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필자는 설교를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퍼포먼스를 통해 체화된 하나님 체험을 구성하는 수행적 사건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설교의 실행에 있어서 신체 및 신체를 통한 의례적 퍼포먼스의 해석학적 역할에 관해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교에서 설교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회중들 역시 귀로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설교 사건 중에 설교자와 회중이 실행하는 신체적 퍼포먼스는 성서에서 추출한 설교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용하는

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를 표현하고 발생하기는 해석학적 구성요소로서 보아야 한다. 성서가 가장 권위있는 계시의 자리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설교 실행에 있어서 성서가 보존하는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은 신체를 매개로 하며, 특별히 신체적 퍼포먼스가 이러한 과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 특별히 한국 부흥설교에서 성령체험 가운데 나타나는 신체의 해석학적 역할은 신체가 본문의 말씀을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설교가 텍스트 전달을 통해 계시 사건을 매개하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 일어나는 신체의 역할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적 목소리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성서 본문을 면밀하게 해석하고 논리적이며 본문에 충실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자의 몸을 통해 표현할 지, 그리고 회중들이 설교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몸을 통해 말씀을 수용하는 지에 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가 한국 교회의 설교 실행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설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논의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라, 『몸 주체 권력: 메를로 폰티와 푸코의 몸 개념』. 서울: 이학사, 2011.
- 김성기, 김병훈, 최윤석,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부흥회의 실제: 부흥사학 개론』. 대전: 한국회망목회포럼, 2015.
- 김양일, “거룩한 공연으로서 설교,” 『신학과 실천』 67 (2019), 95-124.
- 김운용, 『한국교회 설교역사: 이야기 혁신성의 관점에서 본 설교자들의 이야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김정형, “몸의 현상학과 몸의 사회학을 통한 몸의 부활 교리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탐구,” 『신학사상』 189 (2020), 231-235.
- 소태영, “‘주여 삼창’의 순복음교회 기도양식에 내재된 탄식의 영성과 교육,” 『영산신학저널』 40 (2017), 107-140.
- 이성봉, 『천로역정, 명심도, 요나서 강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전현식, “성육신 신앙의 몸 현상학, 몸 신학적 이해,” 『신학논단』 56 (2009/6), 339-361.
- 정인교, 『100 년의 설교산책: 한국성결교회 100 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정재웅, “The Sacramentality of Preaching: A Sacramental Theological Approach to Preaching as the Word of God,” 『신학과 실천』 70 (2020), 61-92.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학사, 2004.
- Bartow, Charles L.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7.
- Barsalou, Lawrence W. et al. "Embodiment in Religious Knowledge,"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5.1-2 (2005): 14-57.

- Brothers, Michael. *Distance in Preaching: Room to Speak, Space to Liste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2014.
- Cavanagh, William T. *Theopolitical Imagination: Discovering the Liturgy as a Political Act in an Age of Global Consumerism*. London: T & T Clark, 2002.
- Childers, Jana. *Performing the Word: Preaching as Theatre*. Nashville: Abingdon, 1998.
- _____. "The Preacher's Body,"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7.3 (2006): 222-237.
- _____. and Clayton J. Schmit, eds. *Performance in Preaching: Bringing the Sermon to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 Connerton, Paul.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Craddock, Fred B. *Preaching*. 25th anniversary edition. Nashville: Abingdon, 2010.
- Damasio, Antonio.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Human Brain*. New York: Penguin Books, 1994.
- Deiss, Lucien. *Early Sources of the Liturgy*. Translated by Benet Weatherhead. New York: Alba House, 1967.
- Gallagher, Shaun. *How the Body Shapes the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Green, Garrett. *Imagining God: Theology and Religious Imagin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9.
- Grimes, Ronald L. *The Craft of Ritual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Edited and translated by Lewis A. Cos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1992.
- Husserl, Edmund.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Second Book,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Constitution*, Edmund Husserl Collected Works, vol. 3. Translated by Richard Rojcewicz and André Schuwer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 Jennings, Theodore. "On Ritual Knowledge." In *Readings in Ritual Studies*, Edited by Ronald L. Grimes, 324-334.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6.
- Johnson, Mark.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_____. *The Meaning of the Bod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 Kaufman, Gordon D. *Theological Imagin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81.
- Kundtová, Eva. & Geertz, Armin W. "Ritual and Embodied Cogni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Early Christian Ritual*. Edited by Risto Uro, Juliette J. Day, Richard E. DeMaris, and Rikard Roitto, 74-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 Lawson, E. Thomas. and Ro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Lee, Graham.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vol. III, no. 3 (March, 1907), 36-37
- Lindbeck, George A.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 McCullough, Amy P. *Her Preaching Body: Conversations about Identity, Agency, and Embodiment among Contemporary Female Preachers*. Eugene, Oregon: Cascade, 2018.
- McFague, Salli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1982.
- Merleau-Ponty, Mauric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ed by Donald A. Land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 Morrill, Bruce T. *Anamnesis as Dangerous Memory: Political and Liturgical Theology in Dialogu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 Ryle, Gilbert. *The Concept of Mind*. London/New Y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2000.
- Saliers, Don. *Worship Come to Its Senses*. Nashville: Abingdon, 1996.
- Schmit, Clayton J. *Too Deep for Words: A Theology of Liturgical Express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 Senn, Frank. "The Body in Protestant Spirituality." In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 vol. 2. Edited by Frank Senn, 200-272. Eugene, OR: Wipf & Stock, 2020.
- Shapiro, Lawrence. *Embodied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2011.
- Smith, James K. A.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3.
- Tracy, David.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Crossroad, 1981.
- Timmerman, John H. "Body and Spirituality." In *The New SCM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ited by Philip Sheldrake, 403-411. London: SCM Press, 2013.
- Varela, Francisco., J. Thompson Eva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Ward, Richard F. *Speaking from the Heart: Preaching with Passion*. Nashville: Abingdon, 1992.
- _____. *Speaking of the Holy: The Art of Communication in Preaching*. St. Louis, MO: Chalice, 2001.
- _____. "Performative Turns in Homiletics: wrong Way or Right O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Religion* 17.1 (1994): 1-11
-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t 1, Book of Confession*.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